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전 금 문

봉우리가 모란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평양의 자랑으로 이름높은 모란봉은 역사유적 또한 많은 곳으로 자랑된다.

모란봉에 있는 역사유적들중에는 고구려가 6세기중엽에 평양성의 북성을 쌓을 때 남문으로 세운 전금문도 있다.

화강석을 잘 다듬어 쌓아 올린 축대위에 무지개문길을 낸 전금문은 마치 한옥의 그림을 보는듯하였고 날아갈듯이 날개를 펼치고있는 함각지붕과 아름다운 모루단청은 아담한 성문의미를 돋구어 주고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사회과학원 리일심연구사는 전금문이 고구려시기 독특한 성문의 짜임새를 잘 보여주는 역사유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금문이란 이름은 비단같이 펼쳐진 대동강기슭에 있는 평양성의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문들은 성벽과 일치



성상에 있거나 그보다 뒤로 조금 물러서 성벽과 평행으로 배치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금문은 양쪽성벽을 앞뒤로 어긋고 그사이에 성벽과 직각으로 설치했기때문에 강건너에서 잘 보이지 않은것으로 하여 대동강배교와 잇닿아있

는 중요한 관문으로 리용되었다고 한다. 전금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격으로 불타버린것을 공화국정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1959년에 원상복구되었다. 오늘날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전금문은 고구려의 우

수한 성건축술만이 아니라 이문을 넘나들며 외적들을 용감히 쳐부신 우리 선조들의 애국투쟁이야기도 길이 전하여주고있다. 장수영



차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는 천연건강음료이다.

차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정신적, 육체적피로를 풀고 유기체의 활동능력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탄닌산이 들어있어 피부보호방화작용에도 효과적이다.

예로부터 차를 즐겨 마신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부

터 차나무를 재배하여왔으며 고려시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차문화는 로동당시대에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더 활짝 꽃피게 되었다.

요즘 공화국의 어디를 가나 차를 즐겨 마시는 풍경을

볼수 있으며 차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차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더운 날에는 차게, 추운 날에는 구워둬서 마시는 습속에서 마실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있다.

최근에는 차음료가 대표적인 무당주정음료로 발전하고있다.

은정차음료공장에서는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세계적기준에 부합된 특차와 홍차, 철관음차를 생산하고있다.

공장이 조업한 때부터 은정차음료가 도처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한겨울에도 은정차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겨울철이면 피부가 마르고 트기때문에 피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5~6분간 잠그면 피부가 피어서 부드럽게 된다. 이때 물고기간유를 갈라진 자리에 바른다. 매일 밤 한차례씩 한주일간 계속하면 아픈것이 없어진다. < 식초와 클리세린을 5:1의 비례로 섞어 매일 두차례씩 갈라진 피부에 골고루 발라주면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윤색해진다. < 갑자 한개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짓찧으면 찰떡처럼 된다. 이것을 와셀린에 버무려 깨끗한 병에 넣어두고 하루 1~3차례 발라주면 인차 낫는다. < 닭알 2알을 삶은 다음 노란자위만을 삶아 넣고 물과 함께 노란 기름처럼 될 때까지 달인다. 이것을 하루 2번씩 발라주면 상처가 3~4일 내로 다 낫는다. < 껍질이 거칠게 된 바나나 한개를 주무럭주 무럭하면 살이 부셔서 보드랍게 된다. 꿀쪽에 작은 구멍을 내고 바나나를 꼭 누르면 살이 치약처럼 흘러나온다. 이것을 손발이 트는 자리에 놓고 비비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 처음은 좀 아픈감이 나지만 이 방법을 몇번만 하면 상처가 인차 낫는다. 본사기자

겨울철에 피부가 갈라지면

겨울철이면 피부가 마르고 트기때문에 피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5~6분간 잠그면 피부가 피어서 부드럽게 된다. 이때 물고기간유를 갈라진 자리에 바른다. 매일 밤 한차례씩 한주일간 계속하면 아픈것이 없어진다. < 식초와 클리세린을 5:1의 비례로 섞어 매일 두차례씩 갈라진 피부에 골고루 발라주면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윤색해진다. < 갑자 한개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짓찧으면 찰떡처럼 된다. 이것을 와셀린에 버무려 깨끗한 병에 넣어두고 하루 1~3차례 발라주면 인차 낫는다. < 닭알 2알을 삶은 다음 노란자위만을 삶아 넣고 물과 함께 노란 기름처럼 될 때까지 달인다. 이것을 하루 2번씩 발라주면 상처가 3~4일 내로 다 낫는다. < 껍질이 거칠게 된 바나나 한개를 주무럭주 무럭하면 살이 부셔서 보드랍게 된다. 꿀쪽에 작은 구멍을 내고 바나나를 꼭 누르면 살이 치약처럼 흘러나온다. 이것을 손발이 트는 자리에 놓고 비비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 처음은 좀 아픈감이 나지만 이 방법을 몇번만 하면 상처가 인차 낫는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너자들에게 유력 정월에 널을 많이 뛰라고 이르던 말. < 정월초하루날 먹어보면 이월 초하루날 또 먹으려 한다. 한번 맛을 들이면 비슷한 조건만 닦아와도 또 하려고 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아닌밤중에 차시루떡 뜻밖에 만난 행운을 비겨 이르는 말.

사화

돌칸한증 (4)

그림 김윤일

박주부는 상놈이라고 속으로 아니꼽게 여기던 사람들에서 난생처음 듣는 별명 유을 다 들은게 분한데다가 그 체통 큰 작자가 남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이명 패설한 일을 벌여놓은것이 명백했기때문에 그만 참지 못하고 또 소리를 질렀다. < 이놈들, 어디다 대구 감히 주둥이질이나? 그네네놈이 박주부라니 그게 사실이나? 그것부터 밝혀라! < 그러자 체통 큰 그 사나이가 꺾꺾 웃으며 빈정거렸다. < 허허... 별놈 다 보겠군. 내가 박주부든 배주부든 네놈이 무슨 상관이나? < 글썽, 어디서 저런 오라질 녀석이 들어와서 한중간분위기를 다 망쳐놓나 말일세. 저 사람 천두리의 별명이 박주부라는데야 세상이 다 아는데 저놈은 어디서 풀러왔길래 그것도 모르구 비린 목청만 돋구고 앉아있나 말일세. < (휘, 별명이라?) < 박주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 박주부를 찾을 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런 별명을 가진자가 대신 나

선정인즉 잘못을 따지면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 (젠장, 천한것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겠군.) < 너는 한중할 기본도 없을뿐더러 잘못하다가는 쫓겨나기가 십상이라는것을 깨달은 박주부는 짝소리 못하고 앉았다. < 그런데 천득이라는 체통 큰 사나이가 끝내 일이 터지게 할 잡도리인지 트집을 질렀다. < 그네, 내 이름이 박주부가 아니면 어쩔셈이나? 네놈이 정말 수장쟁은 놈이 분명하구나. < (음, 그들의 본색을 밝히세. 다같이 벌거벗은 처지인데 꿀물도 먹지 않았다고 재세하는 놈이오면 썩은 드물을 퍼먹어 내뱉어야 마땅하네.) < 허하... 그 첫 참 묘안일세. 썩은 드물이 제격일세. < (애 쇠동아, 저 심부름드는 녀석을 불러서 드물 한사발 퍼오라고 일러라. 폭 썩은것루 말이다.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거적을 들치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라니까.) < 사람들이 벌써 떠들어대자 쇠동이라는 총각이 거적을 들치고 밖에서 대고 드물 한사발 퍼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용기를 내어 물었다. < (아니, 그 대궐에서 벼슬을 사는 박주부어르신이란 말이우?) < (허허, 그렇지 않으면 이아근에 또 무슨 박주부가 있더냐?) < (허... 모를 소리다.) < 물어보던 사람이 고개를 기웃기웃했다. < (박주부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짐작은데다가 풍채 좋은 량반이지... 꿀물, 옛물... 단것이라면 오금을 쓰면 량반, 부자나 상놈이나 다 같지.) < (허허...) < (허하...) < 박주부는 여전히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 묘연하여 전진공공하고있었다. < 이제 드물을 퍼먹어려고 여럿이 달려들어 억지다짐을 해대면 혼자서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르는 판이었다. < 에라, 체면이고 뭐고... 굶배난 박주부는 체 침을 뱉더니 네발걸음으로 영공영공 기어서



지 못하는 어른이신데 꿀물을 사양하는것을 보면 똥가 석연치를 앓아... < (흥, 그러니 저 사람은 가짜박주부임이 분명하네.) < (가짜인지 진짜인지 별거벗구 앉았으니 알수가 없다. 부자, 량반이라구 날 때부터 이마에 새놓은것두 아닌데...) < (음은 말일세. 벌거벗구보

도를 착실히 익힌 다음에 들여놓아야 해.) < (저렇게 심술이 빼돌려진 자들은 한셈이 다 가도 그걸 익히지 못할거네.) < (암, 그렇구말구. 한테 오늘 최서방이 그놈 벼룩을 톡톡히 가르쳐주었어. 이 사람 천득이, 최서방이 아까 입자한데 저 박주부를 혼살배리구 말해두던가?) < 체통 큰 천득이가 벌금벌금 웃었다. < (하다마다요. 꿀물을 들여보낼터이니 먼저 나가서 받아마시고 트집을 걸면서 단단히 벼룩을 가르치려던요. 한테 그놈이 제 먼저 꼬리를 사렸으니 그쯤으로 그쳤구나. 허허...) < 다시금 한중간안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 사람들의 웃음을 잔등에 받으며 허허 도망쳐나온 박주부는 손에 든 대궐에만 눈길을 주며 걸어오던 심부름드는 아이와 열결에 부딪쳤다. < 그 순간 아이가 들고있던 그릇에서 드물이 활짝 쏟아져내리며 박주부의 몸을 적셔놓았다. < (이크! 이게 뭐냐?) < 망신살이 뻗친 한중간은 겨우 피해나왔으나 재앙은 끝내 피하지 못한셈이었다. <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한중도 편히 할수 없다는 교훈이 담겨진 이야기에서 이 한토막의 우스운 일화는 한일 건너 두일 건너 오래오래 전해졌다. ...